

37 차 학술대회 참가기

나두섭 (남가주 '73)

코비드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고 그중 하나는 우리의 자유스러운 만남의 제약일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코비드는 반드시 그런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은 있게 마련이고 코비드는 아직 우리와 함께하고는 있지만 생활에 대한 제약은 점차 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술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을때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스케줄이 한번 연기는 되었지만 결국 확정이 되었고 Washington DC 근교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남가주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보고싶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기쁨에 그런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회 날짜는 모터보트 처럼 빨리 다가 왔습니다. 여행짐은 며칠전에 이미 다 싸아 놓았고 대회 시작날에 새벽같이 일어나 어둠을 가르며 공항으로 갔습니다. 예전같으면 별 느낌이 없었겠으나 2 년여 여행을 못했으니 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탑승한후 생각보다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워싱턴 근교의 버지니아는 이상적인 기후조건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사계절이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춥거나 덥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비도 적당히 옵니다. 물을 따로 안 주어도 잔디가 푸르다니 제가 사는 곳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는데 초호화 호텔은 아니었지만 특별히 흠잡을데는 없었고 직원도 친절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접수할 곳, 정보사항 게시판, CME, non-CME 강의할 장소, 식사할 장소 등이 인접해 있어서 아주 편리 하였습니다. 첫째 둘째날은 non-CME 가 있었고 둘째 셋째날은 CME 가 있었습니다.

CME 가 필수로 요구되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상대적으로 non-CME 의 관심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주제도 많았고 유머와 열성을 겸비한 강사들로 인하여 시간이 짧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의의 흥미를 돋구게하는 것은 청중들의 관심인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보다 더 나은 청중을 바라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CME 연사로는 젊은 강사들이 많았는데 그 모습을 보기만해도 배울 의욕이 생기는 듯 하였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깜빡거리는 수가 많은데도 강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신기하게도

느껴졌습니다. 특히 주제에 노화현상에 관한 것이 많았고 암에 관한 것이 많아서 자기의 관심사와 부합해서 그런것도 있었겠지만 강사의 지식과 열성이 크게 공헌 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한번은 아침 식사때 젊은 강사들과 같이 자리한 때가 있었는데 그들의 청신하고 세련된 모습에 매료 되었고 학술대회 참석한 덕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대화도 나눌수 있지 않았겠는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지혜는 한정되어 있지만 남의 말을 들음으로 그들의 지혜도 나의것이 되는듯 합니다.

학술대회는 배우는 것이 주 목적이겠지만 학술대회의 꽃은 저녁에 열리는 두번의 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기 등장도 있었고 한목소리 한마음으로 교가도 불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2 년동안 못 열렸던 관계로 못 치루어진 시상식들도 있었고 본교에서 주는 시상 그리고 미주 동창회에서 주는 시상등 여러 시상들이 있었고 시상하는 사람, 시상 받는 사람들의 느낌을 생각해보며 저의 마음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말쑥한 모습으로 참석한 모든 분들을 보면서 때로는 수수한 차림을 해야 할때도 있지만 인생에는 이런 화려한 순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여자들의 테이블 셋팅에서 한번은 관계되는 사람들끼리 다른 한번은 같은 졸업연도 순으로 셋팅한것은 번쩍번쩍 빛나는 착상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시상과 식사후에 즐거운 여흥순서도 있었고 사회자의 재치와 화려한 춤숨씨로 그동안의 어려움을 날려보내는 듯 하였습니다.

두번째의 연회전의 각테일 시간이 있었는데 이시간은 서로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스쳐만 가도 인연이라는데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것은 인연중의 인연일 것입니다. 졸업후 49 년만에 만난 친구도 있었는데 조금도 낯설지 않은 것을 보면 학연의 끈끈함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후배 님들의 태도를 배우는것 만으로도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이신데도 부부가 서로 도우며 다정하게 함께 있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창생들과 그 부인되시는 분들의 그룹사진은 제가 찍어본 어느 사진 보다도 멋 있었습니다. 만날때의 기쁨은 헤어짐으로 이어지지만 또 만날것을 기대하면서 대회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학술대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하였을까를 생각하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 집니다. 여기에 일일이 이름을 나열할 수는 없지만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데도 잘 협조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침 점식 식사 제공도 참 좋은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친구의 부인 되시는 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잘 짜여진 학술대회는 본적이 없다.” 고 하였습니다. 이말을 저의 37 차 학술대회의 총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